

극단 선택한 그 날도, 폭행 당하던 그 전날도... 학폭전담 경찰관은 학교에 보이지 않았다

고교생의 죽음...어른들은 뭐 했나

또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 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은 울 들어 사건 당일까지 해당 학교를 단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를 감지하지도 못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 전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담당 학교·학생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과 학교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A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은 지난 2월 해당 학교를 맡게 된 뒤 지금까지 고작 한 차례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초인 지난 3월 열린 위기관리위원회

울 2월 배치 후 16개 학교 전담 5개월간 단 한차례 방문 그쳐 필요할 때 도움 요청 어려워

코로나 비대면 교육 일반화에 학교·학생 상담 사실상 손 놓아 선제적 예방 보다 수습 위주 지적

회의 때 위원으로 참석한 게 전부였다.

학교폭력 전담경찰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학교 학생·학부모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맡는다. 학교를 찾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업무 자체가 이뤄질 리 없다.

이 학교 전담경찰은 모두 16개 학교를 맡았다. 하루 1개 학교씩 방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는 한 달이면 20개 학교를 둘러볼 수 있지만 실제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 뿐 아니다. 광주 5개 경찰서의 SPO는 29명으로, 이들 1명당 담당하는 학교 수도 10개를 넘는다. 29명이 광주지역 초·중·고 314개를 책임지는 셈이다. 광산경찰청의 경우 초등학교 45곳과 중학교 27곳, 고등학교 17곳, 위탁특수학교 12곳을 합해 99개의 학교를 7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전담 경찰이 밀착해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하면서 신고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부득이 학교 방문이 어려워 '핫라인'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상담이 필요한 학생, 자문단 소속 학생 등 3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중"이라며 "학교폭력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자책감에 담당 경찰관도 괴로워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비대면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학교·학생 상담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과 직접 학생들을 대면할 수도 없는 현행 제도로 인해 무늬만 '전담' 경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PO의 제도적 배경은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밀착형으로 학교에 깊숙이 개입 하고 전담할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SPO는 학교폭력에 선제적 예방 효과보다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경찰은 7일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급수선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 건조 혐의 진도군청 압수수색

경찰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 받아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진도군청을 압수수색했다.

5일 전남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과, 의회사무과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혐의(공무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군은 2016년 국토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원 중 27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으며 국토부에 환수를 통보했고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진도군을 고발조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측 올해 6차례 학폭 예방교육 했지만...

학교 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수차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4일까지 모두 6차례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학교측은 지난 4월에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초청강연까지 열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자살예방 가정통신문도 7차례나 보냈다.

이런 교육과 안내·홍보에도, 학교측은 힘들어 하는 학생의 피해 실태를 감지하거나 도움을 주

피해 사실 신고 환경 조성 안돼 형식적인 교육 전면 개선 필요

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교측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2일까지 '자살예방상담주간'으로 지정하고 상담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학생이 편안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식적인 예방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 교수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예방교육 자체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다만,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 식 교육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생명존중과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결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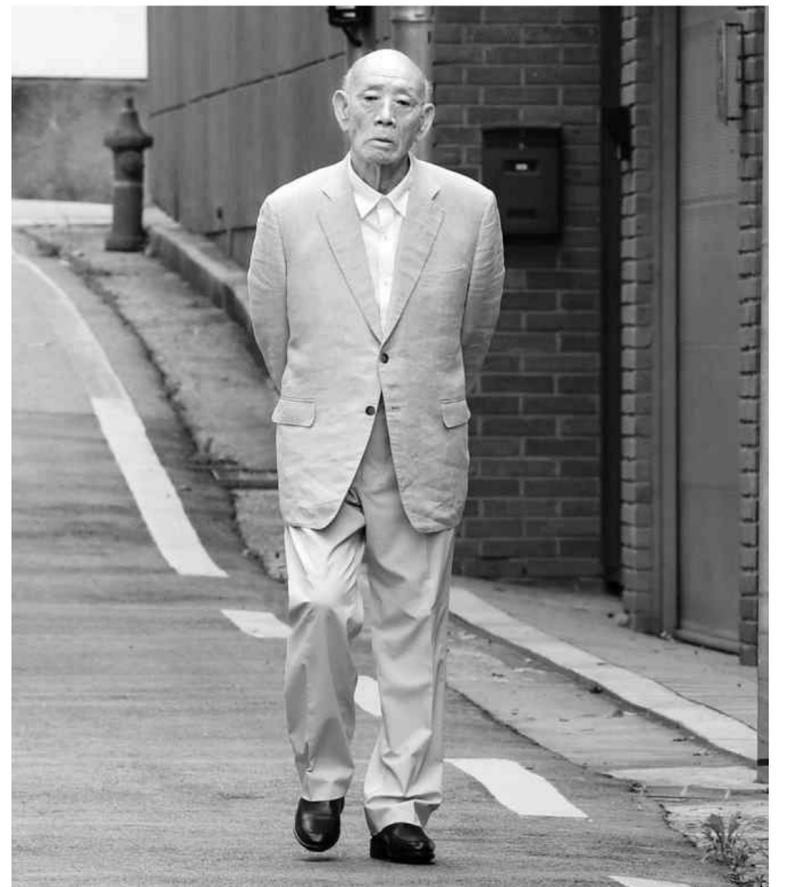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은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여기로 한다. 입증은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불출석 시 불이익 제재' 방침에 전씨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당장, 재판부는 5·18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주장하는 전씨측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

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이 이뤄졌거나 증인신청에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으로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1~2명 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사실심(事實審)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무죄 주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피고인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전씨 측은 이에 "고민해보겠다"고 언급,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재판 출석 않고 집안 산책 전두환씨가 5일 오전 10시 30분께 뒷짐을 진 채 혼자서 서울 연희동 자택 앞 골목을 산책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지만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제공>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